

새로운 미술 사조 창출,
세계 문화예술계 선도

미술학부

School of Fine Arts



<http://khuart.com/>



세계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문화예술 인재

21세기 급변하는 미래 세계에는 감성 중심의 문화예술 활용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각 전공 간의 자유로운 통섭에 의한 다원적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미술학부는 한국미술의 예술철학과 창의적 조형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며 세계 문화예술계를 선도할 수 있는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전공 미술 분야의 기초교육과 첨단 학문을 비롯한 인접 교과와의 융합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술 사조를 창출하며 세계와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한국화 전공은 한국·동양미술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교육관을 지향합니다. 회화 전공은 급변하는 미술 지형에 맞추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순수 회화에서부터 설치, 영상, 다중매체까지 보다 넓은 예술의 외연을 고민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실기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조소전공은 입체와 공간을 다루는 분야로 전통적인 조형방식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함께 교육함으로써 융합적인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순수미술의 창의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한국화 전공에서는 전통적인 수묵화, 채색화, 견화, 공필인물화, 민화 작업은 물론 컴퓨터, 영상을 활용한 뉴미디어 매체, 캘리그라피, 일러스트레이션 수업 및 자유 창작과 현직 비평·기획자를 중심으로 한 크리틱 수업 등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회화 전공에서는 회화의 기초 조형 교육을 통해 시각적 사고를 개발하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하여, 인체와 풍경 등의 전통적인 재현과 표현 기법, 재료와 매체의 특성 등 전통회화에 대해 연구합니다. 5학기부터는 자신만의 주제를 통해 정통회화를 연구하는 <평면>분야뿐 아니라, 건축을 결합한 <공간>, 사진과 영상을 연구하는 <미디어>, 상업적 연결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세분화된 영역의 교육과정이 진행되어 더욱 확장된 회화 영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조소 전공에서는 저학년에서는 인체 소조, 캐스팅, 목공, 금속 용접, 재료기법 등을 다루는 기초 입체 조형 기법을 습득하는 수업을 전공 내에서 진행합니다. 고학년에서는 탈전공영역을 통한 학제간 연구와 실험을 추구합니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테라코타, 도자, 흙 모델링과 캐스팅 등의 전통적 조형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하고, 메이커스페이스와 미디어실의 3D프린터, 레이저커터, CNC 등의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통 기법과 디지털 기법을 혼합한 공간 연구, 프로젝션매핑, 키네틱 및 인터랙티브 조형 등의 융합적 교육을 통해 입체와 공간 조형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술경영 트랙과 뉴미디어아트 트랙

미술대학은 각 전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예술경영트랙과 뉴미디어 아트트랙을 개설하여 미술전문이론 및 디지털 활용 수업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 트랙을 이수하면 졸업후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통한 예술가의 길은 물론, 평론경영 전공을 통한 뮤지엄이스트(Museumist), 높은 임용고시 합격률을 자랑하는 교육대학원을 통한 미술교사 등 다양한 진로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미디어아트 트랙의 디지털 그래픽, 영상, 3D 모델링 및 설계, 인터랙티브 아트 및 캡스톤 디자인 등의 다양한 디지털 수업을 통해 예술의 융합적 확장과 표현 매체의 선택, 취,창업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부의 동아리

학술 연구 동아리 '학술부', 야외스케치, 외부전시, 특강, 졸업생 연계 활동 동아리 '필담(筆談)', 동양화론 연구 및 전시관람 동아리 '소확행(小確幸)', 외부 R&D, 공공미술, 공모전 프로젝트 동아리 '사방팔방(4方8方)', 공모전, 대외활동, 순수예술, 멘토링 동아리 '스쿠디오(sKHUdio)', 조소 전공 내 작가 지망생들의 소속감 제고 및 3D모델링 스튜디오와 같은 뉴미디어 기술 개발을 위한 아텍(Artech)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실기고사 등 차별화된 입시제도의 평가 기준

한국화 전공은 정물과 인체 수묵담채화로 입시를 진행합니다. 정물 수묵담채화는 문장의 제시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과 창의력을 평가합니다. 인체 수묵담채화는 모델에 대한 인물 표현 능력 및 인체의 동세와 비례 등이 주된 평가 요소입니다.

회화 전공은 정물 수채화, 인체 수채화로 입시를 진행합니다. 정물 수채화는 재료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통한 재현 능력과 화면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한 구성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인체 수채화는 제시된 문장의 해석을 포함한 인물의 동세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제시된 인물의 비례와 이미지 표현의 충실성이 평가의 주된 요소입니다.

조소 전공은 문장 제시와 사진 제시의 두 트랙으로 인물 두상 소조 입시를 진행합니다. 문장 제시 트랙으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과 통찰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인체 조형의 기본인 해부학의 정확도와 표현력이 주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사진 제시는 평면을 입체로 조합하는 구조적 재현 능력이 필요한 트랙으로, 인체 해부학 정확도를 기본으로 사진의 인물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이 평가의 주된 요소입니다.



미술계를 빛낸 유명 졸업생들이 있나요?

미술학부 졸업생들은 작가, 대학교수, 중등교사, 큐레이터, 뮤지엄전문가, 아트마켓, 영상, 무대, 디자인, 건축분야, VMD(Visual Merchandiser), 3D CG(Computer Graphics) 디자이너, 아트 디렉팅, 설치 전문가, 웹툰 작가, 타투이스트, 서예 또는 캘리그래퍼,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명 졸업생으로 1992년 독일 카셀 도큐멘타에 한국인으로서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초청된 육근병 작가가 있습니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새 시대에 주목받은 15인의 작가'에 선정되었고 ZKM의 '비디오아트상'을 수상하며 백남준의 뒤를 이은 차세대 미디어예술계의 거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외에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최고 조각상인 '프라텔리 로셀리 국제 조각상'을 수상한 박은선 작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사실주의 화가로 '인물화 하이퍼리얼리즘'의 강강훈 작가, '제10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 김주리 작가, '2002 성곡미술대상 대상작가' 리경 작가 외 다양한 분야의 미술계, 교육계, 기타 미술 제반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